

## Hot issue

FOCUS 1004의 날 / 02

REVIEW 네팔비전트립 / 05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DAIL COMMUNITY

# 다일공동체

2013. 10



Maayaa Garchhu Nepal

사랑해요, 네팔

## 온 맘 다해 감사합니다!



높고 푸른 하늘에 새털구름이 펼쳐진 가을의 한 가운데로 바람이 지나갑니다. 곡식과 과일들이 익어서 맛과 영양분을 높여가는 이 청명한 계절에 후원회원 여러분들에게 붉은 단풍잎처럼 진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8월 말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팀과 네팔다일공동체가 있는 카트만두의 마느하르 강 주변의 빈민촌에 가서 식수탱크와 공동샤워장을 건립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다일과 함께 나눔과 섬김 사역에 협력해 주시는 기업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월 6일에는 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다일공동체 창립 25주년 기념학회가 감격 속에 열렸습니다. 지난 20주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발제를 맡아주신 박종삼 박사님, 정장복 박사님, 유장춘 박사님, 조홍식 박사님, 김동배 박사님, 이강학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분원장 홈커밍데이에 참석차 귀국했던 해외 7개 분원 분원장님들이 함께하여 더욱 뜻 깊은 행사였습니다.

10월 4일(1004DAY)은 다일공동체에서 시작되어 21년 전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간 천사운동을 기념하는 천사의 날이자 천사병원 개원 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일천사병원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무료 외래진료와, 돌볼 사람 없는 말기 임종환자들을 위한 웰다잉하우스인 '다일작은천국'의 두 기능을 통해 보다 심도있는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항상 후원회원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물심양면의 헌신이 함께 해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후원회원 여러분! 온 맘 다해 감사합니다!

후원회원님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C O N T E N T S

2013.10



02	<b>FOCUS</b>	11주년 1004의 날을 맞아
05	<b>REVIEW</b>	네팔다일공동체를 가다 "사랑을 주고 왔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마음이 더 따뜻해졌어요"
08	<b>다일공동체 창립 25주년 기념 학회</b>	21세기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다일공동체의 의미
10	<b>해외 다일의 현장</b>	미주 · 필리핀다일공동체
14	<b>아름다운 변화</b>	빵퍼 전도사가 꿈퍼 전도사로...
16	<b>봉사자 나눔터</b>	밥퍼는 000다
17	<b>봉사자 나눔터</b>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18	<b>영혼을 위로해 주는 시</b>	
19	<b>다일 뉴스</b>	
23	<b>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b>	
24	<b>후원 안내</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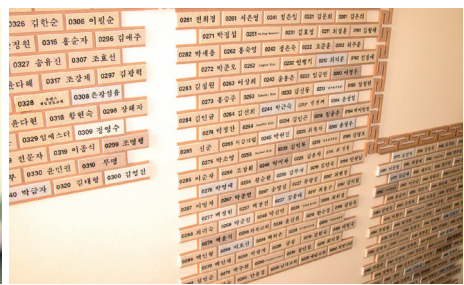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후원 문의 및 신청 02-2212-8004 [www.dail.org](http://www.dail.org)

발행인 | 최일도 편집장 | 김연수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발행일 | 2013년 10월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 1동 495-15 편집위원 | 김도한, 목정수, 이가영, 최가람

사진 | 김도한, 목정수 디자인 | 이진희 전화 | 02-2212-8004, 2213-8004 팩스 | 02-2243-8005



## 천사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도 다일천사병원 계단 벽면에는 천사회원들의 명패가 벽돌을 쌓아 올리듯 걸려있습니다. 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면 나도 모르는 사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천사병원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함께 울고 웃었던 그 많은 시간들이 한 편의 파노라마처럼 떠오르며 나로 하여금 웃게 하고, 울게도 하기 때문인데요.

어려웠던 시간, 다일공동체가 세상에 드러나기 전 조용히 시작되었던 천사운동에 동참해준 후원회원들의 정성에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95년 12월, 다일공동체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다일공동체..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 글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변엔 쓰레기가 쌓여있고, 찬바람이 휘몰아치던 청량리 588 그늘진 그 곳에는 다일공동체 나눔의 집이 있어 훈훈했습니다. 비록, 의대생들로 구성된 의료진이었지만 어르신들을 만져주고, 닦아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들이 있어 마음까지 치유되던 초창기 다일공동체 무료진료센터가 오늘의 다일천사병원으로 거듭났습니다.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많은 봉사자들로 북적거렸던 진료실, 침을 놓아주던 한의대 선생님, 약을 지어주고, 환우 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변변한 장소하나 없는데도 그 곳에 있던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병원문턱이 높아서 진료와 수술을 받지 못하는 무의탁 노인, 노숙자, 외국인 노동자 등 가장 소외된 그늘에서 눈물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위해 무료병원을 짓기 위한 모금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환영보다는 질타를 받았고, 응원의 메시지보다는 무료병원은 지어질 수가 없다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다일공동체가 자리잡고 있는 전농동 주민들은 목소리 높여 항의를 해왔고, 수없이 많은 민원들로 골치가 아프기도 했습니다.

밥을 주는 것도 모자라 이제 병원까지 짓게 되면 이곳은 노숙인들의 세상이 될 것이라며 집값이 떨어지고, 땅값이 떨어지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지냐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누구가든 해야 할 일이었고, 꼭 필요한 사역이라 여겼기에 공동체 가족들은 매일같이 모여 기도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95년 동아일보에서 출간되었던 [밥 짓는 시인, 퍼 주는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 베스트셀러가 되자, 다일공동체를 돕는 사랑의 손길들이 조금씩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10월 4일,**  
천사회원들의 눈물어린 정성들이 모여 꿈처럼 다일천사병원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라 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다일의 해외 사역지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 구순구개열과 척추측만 등 그 나라에서는 치료할 수 없는 아이들을 다일천사병원으로 데려와서 그들을 수술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다. 아니 더욱 더 큰 기쁨과 감사로 섬겼습니다.

아름다운 변화 프로젝트 (Beautiful Change Project)를 통해 외모뿐 아니라 그 아이들의 인생까지도 변화되어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욱 더 컸습니다. 거울로 자신들의 모습을 보기 두려워했던 아이들이 거울공주가 되어 손에서 거울을 내려놓지를 앓았고, 뛰고 또 뛰며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기뻐하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들이 가슴 벅차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일천사병원이 개원한 후 10년이 되지 않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는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무의탁 노인들과 행려자분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병원 문턱이 많이 낮아져 다일천사병원은 2011년 5월부터 치료가 어렵다 진단이 내려진 분들이지만 가족들이 없는 분들이 길거리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고, 마지막 삶을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일작은천국과 함께 사용하게 되고 있습니다.

넉넉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해서 나누는 사람들이 있기에 행복하고, 지금이 순간에도 나눔과 섬김의 사역이 계속 이어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글\_다일복지재단 김수민 경영지원실장





## K-water의 사랑나눔 “이렇게 좋은 수가”



### 천사병원 후원안내

다일 천사병원은 1992년 청량리 뒷골목의 직업여성들과 펌부 아주머니등 세상에서 제일 손가락질 받으며 죄인 취급 받던 우리 동네의 상처를 받은 여인들의 눈물로 모아준 기부금 475,000원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동전 100원에서 부터 1구좌에 100만원에 이르기 까지 1004명의 후원 회원들이 뜻과 마음을 모아 천사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작은 사랑의 나눔이 모여 2002년의 "1004 DAY"인 10월 4일에 그 결실이 맺혀져 기독교 최초의 무료 병원인 다일 천사병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기적의 역사에 동참할 천사를 찾습니다.

### 다일천사병원의 후원내역

진료비 후원 |  
목적헌금(기구,약품, 의료자재)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0-01-0975-871

문의전화 |  
02-2213-8004

### 다일천사병원 연혁

- 2002 10/04 다일천사병원 개원
- 2003 10/04 다일천사병원 개원 1주년 감사예배
- 2004 10/04 다일천사병원 개원 2주년 기념 다일후원의 밤(63빌딩)
- 2005 03/27 캄보디아다일공동체 의료사역자 파송, 프놈펜다일덴탈클리닉 개원
- 2005 10/04 다일천사병원 개원 3주년 기념 다일후원의 밤(한전본사강당)
- 2006 10/04 다일천사병원 개원 4주년 기념 천사의 날(돈암동교회)
- 2007 10/04 천사의 날 다일천사병원 개원 5주년 기념(명성교회월드글로리아센터)
- 2007 10/19 캄보디아 다일천사클리닉 준공식
- 2008 07/07 노블레스 오블리제(W호텔비스타홀)
- 2008 10/04 천사의 날 돈암동본교회(윤복희, 허준호, 김선경)
- 2011 06/01 다일작은천국 개원
- 2012 10/04 다일천사병원의 '천사데이' 기념예배
- 2013 08/01 서울시 안전망병원(서울시 4개 무료병원)과 협약서 체결.서울의료원에 환자 의뢰 및 진료

2013년 K-water는 임직원 해외 사회공헌 사업으로 1차 팀 임직원 17명, 2차 팀 임직원 19명과 대학생 서포터즈 8명의 해외봉사단을 선발하여 카트만두 박터푸르 티미시 마느하르 강변 빈민촌에 위치한 네팔다일공동체에 파견했습니다. K-water의 지원을 받아 네팔다일공동체는 식수 탱크 개발 공사와 공동샤워장 건립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해외봉사단은 강둑쌓기 노력봉사, Hope School 교육봉사, 체육대회와 마을잔치와 같은 문화교류활동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7박 8일의 일정을 네팔다일공동체와 함께한 K-water(한국 수자원 공사) 2차 팀은 새롭게 제작된 공동샤워장에 예쁜 벽화를 그리고 준공식 행사에 참여하여 지역 주민들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브라질 다음으로 세계에서 물이 가장 풍부한 나라이지만 물 부족 국가로 선정된 네팔의 수자원 개발·관리 기술은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 네팔에서 가장 더럽고 오염된 물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마느하르 빈민촌의 열악했던 날들을 뒤로 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수탱크가 연결되고, 공동샤워장이 완성되던 날, 주민들이 모두 나와 춤추고 노래하며 마을 축제를 벌였습니다. 깨끗한 물로 씻겨 된 아이들이 '빠니 뿌란 호!'를 외치며 기뻐했습니다.

“빠니 뿌란 호! 물은 생명입니다!”

“단예밭, K-water! 감사합니다, K-water!”



## “사랑을 주고 왔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마음이 더 따뜻해졌어요”

• 소감문

K-water 노조여성부위원장 \_ 유정희

네팔 카트만두 빈민촌. 쓰레기로 뒤덮이고 분변이 그대로 방류되는 강가에서 수영하고, 그 오염된 물을 마시는 아이들은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각종 질병에 걸리지만,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가려움과 고통을 호소하고 폐인 상처가 아물 틈이 없이 또 다른 아픔으로 인해 상처투성이인 채로 하루하루를 견뎌가고 있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사랑을 나눠준 줄 알았는데 더 큰 사랑을 받았다는 생각이 더 점점 확실해져가고, 그 확신의 순간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수 있었다. 내 가슴이 이렇게 뿌듯하고 포근한 것은 그 아이들의 순수함과 꿈이 나의 웃음과 관심 속에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인 것이었다.

지구상의 나와 같은,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같은 인간으로서의 소박한 꿈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안타까움에 가슴이 아려던 것이다. 신발이 찢어지면 맨발로 진흙을 밟으면 되고, 입을 옷이 여의치 않은 때는 어떻게라도 떨어진 옷이라도 걸치면 되지만, 꿈을 설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암흑 속에 사는 것과 같은 것임을...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을 보며 절실하게 가슴 아팠던 부분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렇게라도 도움의 손길이 그들에게 닿아 있어 하루에 한 끼지만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었으며, 정말 상황에 맞게 이름이 잘 지어진 “hope school”을 운영하고 있어 아이들에게 꿈을 키울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코끝이 찡해지는 아릿한 감정과 함께 작은 기쁨이 솟아났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효과적으로 재능기부를 할 수 있으며, 얼마나 아이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



을까라는 반신반의한 마음과 사춘기에 접어든 딸과 아들에게 엄마로서 모범이 되는 계기를 만들고 싶어 시작한 봉사활동이었다. 어려서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내가 바로고 장하게(후후~)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이었다. 내가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면 “우리보다 못한 환경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행히도 행복한 것이란다. 미래를 바라보며 걸모습에 치우치기보다는 내면을 키워야 한다. 우리 딸 참 대견하네”라며 내가 마치 이미 다 이겨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긍정적인 면을 심어주셨다. 자신감과 꿈! 이것이 그들에게 내가 주고 싶은 것이었나 보다.

‘나’를 내려놓고 순수한 노력을 행한 우리 팀원들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40이 넘는 나이에 나는 한 번 더 성장을 하였고 이런 엄마를 바라보는 아이들 또한 지금은 명확히 알지 못해도 나눔의 자세가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으며 성장하게 될 것이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이머시~

## 애들아! 아프지 마라!

• 소감문

K-water 기술본부 사업지원처 \_ 엄수진

반복되는 일상에서 매번 하나님께 입으로만 ‘감사합니다’라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난 어느 순간 ‘이렇게 살면 안되지..’, ‘무슨 재미있고 보람된 일 없을까?’하고 고민하던 중 ‘2013년 해외 봉사단원 선발’ 모집공문을 보며 용기내어 신청해본다. 봉사활동의 일꾼으로 선발되어 난 첫 번째 진심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린다. 8월 26일 월요일, 드디어 네팔로 향한다.

본격적인 봉사활동 시작이다. 우린 각자 준비한 후원 물품을 들고 아침 일찍 다일센터로 향한다. 벌써부터 아이들은 목소리 높여 찬양을 부르고 있다. 그런데 내가 우려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 현장을 보니 아이들의 안쓰러움과 간절함 등 복잡한 감정으로 나를 울게 만든다. 앞에 나가서 같이 울동도 하고 찬양하고 싶었지만 눈물이 너무 흘러 몸을 숨긴다.

매일 우리 팀원은 일정에 맞추어 준비한 봉사를 실시했다. 교육봉사, 공동사위장으로 설치된 컨테이너 벽면에 아기자기하게 색칠한 벽화그리기 봉사. 마을잔치를 위해 잡채, 궁중떡볶이, 호떡 등 500인분 음식을 만든 음식만들기 봉사, 축구/줄다리기/풍선 터뜨리기에 아이들과 즐거운 체육대회 봉사, 비가 많이 올 때마다 길이 유실된다며 강둑을 튼튼히 쌓아올린 강둑쌓기 봉사 등. 여러 봉사 중 특히, 몸은 아주 고됐던 강둑쌓기 봉사가 기억에 남는다. 이 지역 마을 사람들이 지날 때마다 K-water를 기억해주리라 생각하면 내 마음까지 든든하고 아주 보람된다.

이젠 현지시스템 및 아이들과 헤어져야 할 시간.. 예은, 승주팀원은 벌써부터 슬피운다. 난 매일마다 기도도



렸다. ‘하나님, 우리 마누하르 푸른마을 지역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꿈과 희망을 주세요. 이 곳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어요.’ 매일 반복되는 기도를 드리면서 ‘불쌍하다, 가엾다’라고 생각했던 이곳의 아이들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심을 믿기에 그렇게 슬픔만 있지 않음을 느낀다.

‘앞으로 아이들이 다일센터를 통해 믿음도 커가고 많이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작별인사에 용기를 담은 말을 해주고 싶다. 알아듣지 못함을 알지만 그래도 난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씩씩하게 ‘항상 건강해’, ‘행복해’라며 인사한다. 돌아가는 버스에 앉아 다시 기도한다. ‘애들아, 아프지 마라. 사랑해. 그리고 고맙다.’ 이곳 아이들을 통해 난 입으로만이 아닌 진심된 감사함을 몇 번씩이나 고백해본다.





## 감격 속에 열린 다일공동체 창립 25주년 기념 학회

2013년 9월 6일 금요일에는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다일공동체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는 학회가 열렸습니다.

1988년, 유학의 길을 꿈꾸던 신학생이 청량리역의 노숙자 할아버지께 대접한 설렁탕 한 그릇이 밥퍼나눔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하겠다는 정신으로 시작된 이 '밥퍼나눔운동'이 이제는 중국, 미주,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그리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개신교 최초 무료 병원인 다일천사병원, 호스피스 병원인 다일작은천국, 설곡산의 영성생활수련원과 자연치유센터, 묵안리에 있는 다일평화의마을,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의 7개 분원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전인치유와 회복, 공동체 훈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에는 특별히 다일공동체의 지난 25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25년을 전망해보고자, 다일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분들의 충고와 조언을 듣는 '다일공동체 창립 25주년 기념 학회'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학회는 "21세기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다일공동체의 의미"를 주제로 한 월드비전 한국글로벌사회복지연구소 박중삼 박사님(전 월드비전 회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각각 다일의 영성생활과 성사생활, 공동생활, 봉사생활, 국제적인 NGO 다일의 활동의 다섯 가지 주제로 주제 강연이 있었습니다. 제1주제 다일의 영성생활은 다일교회 최초의 청년회장 출신으로 현재 햇빛트리니티 신학대학원 교수로 계시는 이강학 박사님이 "다일이 추구하는 영성과 영성신학적인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다일공동체의 영성을 연구하여 강연해주셨습니다. 제2주제 다일의 성사생활은 장신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자 한일장신대학교 명예총장님이신 정장복 박사님께서 '서울다일교회 예배와 전례'에 대해 연구해주셨습니다. 제3주제 다일의 공동생활은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유장춘 박사님께서 다일공동체의 공동체 정신에 대해 강연해주셨고, 제 4주제에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의 김동배 박사님은 밥퍼나눔운동본부와 다일작은천국, 천사병원의 사역을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전망과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박사님께서 '다일공동체 해외 사역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해주셨습니다.

박중삼 박사님께서는 기조강연에서 "다일공동체가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선교사역공동체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주목할 만한 대표 기관으로 성장하였다"고 주목하시면서, 앞으로 21세기 한국 교회들과 협력하여 가난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실천하는 신앙공동체로 성장하는 청사진을 그리셨습니다. 이번 학회에는 다일공동체를 섬기는 지체들과 많은 동역자들, 후원회원님들, 교역자들과 학계와 교계의 벗

님들이 함께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다일공동체가 개원한 해외 7개 국가에 위치한 각 분원의 분원장님들도 학회에 참석하셔서 다일공동체가 지나온 길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주제 발제자 박사님들과 다일공동체의 공동체 가족, 다일복지재단 실무자, 후원자와 교우들이 열띤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 5시간의 학회 시간이 순식간에 흘렀습니다. '토종 NGO 다일공동체'의 특수성과 사명, 비전에 대한 고민과 사회적 책무성, '기독교 NGO 다일공동체'의 역할, 협력의 실천 방안 등 심도 있는 다양한 논의들을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일공동체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이 땅에 소외된 이웃들의 손을 잡고 아름다운 세상을 찾아 누리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 주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과 '가서 전하라'는 선교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25년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서울 청량리역 근처의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나눔의 씨앗이 25년의 세월동안 곳곳에 뿌려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다일공동체를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학회는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 손에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하며 마쳤습니다. 학회에서 주옥같은 강연을 해 주신 박중삼 박사님과 정장복 박사님, 이강학 박사님, 유장춘 박사님, 김동배 박사님과 조흥식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학회의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다일의 벗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다일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BAZAAR OF LOVE



## 매주 토요일은 사랑의 바자회!

사랑의 바자회를 위해 물품을 후원해주실 은인을 찾고 있습니다.  
따뜻한 봉사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아틀란타의 하늘은 늘 푸르고 높습니다. 가을을 부르는 듯한 시원한 바람이 부는 어느날 미주다일공동체 스태프들은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3세계 어린이를 위한 바자회가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미주다일공동체는 매년 분기별도 해외에 흩어져 있는 제3세계의 사역지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중국, 탄자니아)의 사역을 위하여 후원금을 모금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기 위하여 오늘은 창고에 있는 후원받은 물건들을 다 들고 나와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큰 준비 없이 갑자기 열게 된 바자회이지만 늘 수고해 주시는 자원봉사자 이성자 권사님과 연합교회 집사님 한분이 함께해 주셔서 바자회를 순조롭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미주다일공동체가 바자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제3세계어린이들을 위한 후원금 모금을 위함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미주다일공동체 주변에 사시는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자회 때마다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기에 더욱 더 필요한 행사입니다.

오늘도 인근의 어려운 주민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물건 하나 하나를 고르면서 우리 딸, 우리 아들, 친구, 여동생 등 선물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필요한 물건들을 아주 저렴하게 구매하고 가셨습니다. 좋은 물건들을 쇼핑백 가득 가득 담아가시면서 입가에 웃음을 꽃이 활짝 피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저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가시는 이웃들을 보니 저희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뿌듯해 졌습니다. 오늘도 이 먼 미국 땅에서 미주다일공동체가 해야 할 사명을 찾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 해 나갈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작은 행사이지만 오늘부터 몇 주간 매주 1회 이어지는 바자회의 모든 수익금은 제3세계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전달될 예정입니다.

### 미국다일공동체 후원하기

후원계좌 | 국민은행 467701-01-142565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문의 | 미국 박종원 원장





##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필리핀다일공동체에 오랜만에 봉사팀이 방문오셨습니다.

한일교회(담임:이국현목사님) 청년부 24명이 3박4일 일정 동안 필리핀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많은 봉사를 하였습니다.

### 필리핀다일공동체 후원하기

후원계좌 | 국민은행 467701-01-142581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문의 | 필리핀 이명현원장 63-927-560-7346

한일교회 봉사팀은 필리핀에 도착한 첫날부터 달려와서 센터 외벽 페인트칠과 유치원 책걸상과 밥퍼의 모든 테이블을 아름답게 칠해주었습니다. 그 동안 짙은 밤색으로만 되었던 밥퍼 센터의 테이블까지 예쁜 색깔로 단장하고 나니 아이들도 더 생기가 나고 밥맛도 두 배나 되었습니다.

프로그램도 풍성하고도 다양하게 준비해왔습니다. 밥퍼봉사, 풍선아트, 미술, 팝콘, 달고나 뽑기 등은 기본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선풍기 앞에서 실험해보고, 예쁜 팔찌를 만들어서 자기 손목에 차고, 갖구은 도넛츠에 고사리 같은 손으로 형형색색 예쁘게 데코해서 먹어보고 집에 가져가기 등등... 그렇지 않아도 동그란 아이들의 큰 눈이 더 커지며 반짝반짝거렸고 마을 주민들까지 덩달아 신나서 나흘 동안 마치 동네 잔치를 하는 것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밥퍼 후원금과 유치원 아이들 체육복까지 풍성하게 후원해 주셔서 물질로도 섬겨주셨습니다.

필리핀다일공동체는 그 동안 남모르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다일공동체의 해외 분원이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필리핀은 상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필리핀다일공동체도 다른 분원에 비해 훨씬 월등한 여건인 줄 아십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필리핀다일공동체는 다른 해외분원에 비해 오히려 소외 지역입니다. 규모도 가장 작고, 방문자나 봉사자의 발걸도 매우 뜸합니다. 당연히 후원금도 아주 적습니다. 분원을 책임져야 하는 원장의 입장으로선 애타는 기도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빈약한 필리핀에 한일교회 청년부팀이 방문하여 나흘간 봉사활동을 하였으니 저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일교회 같은 봉사팀이 한달에 한번씩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겠어요?

한일교회 이국현목사님과 청년부 여러분들! 님들 덕분에 필리핀다일공동체가 행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 빵퍼 전도사가 꿈퍼 전도사로...

- 중국다일공동체 리얼

제가 드디어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여 제빵 자격증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중국 두만강 기술학교에서 틈틈이 제빵 기술을 익히고 배웠던 실력으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 가서 제자들을 길러내며 매일매일 2000개의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선린대학교 전일평 선린대학교 총장님의 은혜로 포항에 있는 선린대학에서 장학생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2월에 선린대학교를 졸업하고 필기시험엔 네 번 실기시험은 두 번 만에 8월 22일 마침내 국가기술자격증을 따낸 기쁨을 온 성도들과 나누고 나니, 더욱 더 감사가 넘쳐나고 눈물이 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큰아버지 최일도 목사님의 배려와 사랑임을 알기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모님을 잃고 길거리의 아이로 자라다가 12살에 훈춘다일고아원에 들어 왔습니다. 다일공동체 후원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건 아니었으나 저는 성실하다는 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진로를 앞두고 과연 어떻게 살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하나님, 큰아버지와 한국 후원자들의 도움 없이는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었을 터인데’ 라고 생각하니 나도 누군가를 섬기며 돕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빵사가 되어 특별히 북한 땅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빵을 실컷 먹이고 싶다’라는 꿈과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기술고등학교를 지원하여 졸업하자마자 소망대로 북한에 빵을 보내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캄보디아에도 굶주린 아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2008년부터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 가서 처음으로 ‘빵퍼’ 사역을 시작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씨엠립에서 ‘빵퍼’를 시작하면서 빈민촌 아이들에게 빵을 먹이는 것 뿐 만 아니라 씨엠립에 사는 청소년들

에게 제빵 기술을 직접 가르치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자 하는 그 작은 소망과 꿈으로 인해 캄보디아에서만 1년에만 삼십만개 이상의 빵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나누었고, 캄보디아에서 길러낸 제자들만 14명입니다.

그 후 더 맛있고 질 좋은 최고의 빵을 만들고 싶은 소망을 담아 올린 기도가 실현되어 선린대학교 전액장학생으로 한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제빵학과를 당당하게 졸업하고, 드디어 제가 국가기술자격증을 하나님께 봉헌한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방황하며 생을 비판하던 제가 다일을 만나서 꿈을 갖게 되었고, 소박한 꿈이 캄보디아에 수많은 아이들에게 빵을 먹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에나 준비되어있는 사명자로서 전 세계를 누비며 빵을 만드는 빵퍼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빵과 함께 꿈을 키워주는 전도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 밥퍼는 000이다

**복음의 전파다** 휘봉고 교요한  
 오늘 오신 어른들에게 밥을 가져다 드릴 때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매우 많이 뿌듯한 마음이 쑥쑥하고 피어올랐다.

**엄마다** 새로운교회 유시내  
 엄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엄마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 엄마의 따뜻한 품 그리고 애정 가득한 눈빛과 따뜻한 말투일 것이다. 밥퍼는 이 모든것을 갖춘 엄마와 같은 곳이다. 이곳에 밥을 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가게 된다.

**열차다** 목양교회 조향현  
 밥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킬 울바르게 이루어진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해 나가는 그 시간이 밥퍼를 살아있게 한다. 열차의 모든 부품과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힘써 행할때 열차가 움직이듯이 누군가는 기도로, 누군가는 봉사로, 누군가는 헌신으로 섬길때 밥퍼는 멈추지 않고 달릴 것이다.

**회복이다** 삼양제일교회 강경돌  
 어제 밤에 밥퍼 책을 읽고 기도하며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의 삶에 새로운 감사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밥먹고 밥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눔이다** 이일웅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봉사는 처음입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속에서 무엇인지 모르는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얼마 안되는 몇시간의 봉사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될때, 아니 시간을 내서라도 자주 찾아와 봉사하겠습니다. 이런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이다** 예스코 장기석  
 어르신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작은 정성을 다해 각자 맡은 일들을 서로 도와가며 하는 일이다. 반찬을 만드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음식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정에서도 서로 도와가며 해야겠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곳이다** 예스코 장종진  
 처음 봉사활동 한다고 그저 시간만 때우고 대충하다 가야지 생각했었다. 하지만 같이 온 사람들과의 식사준비에 즐거움이 있었고 누굴 도와준다는 것보다 일을 하면서 나의 살아온 모습을 돌아볼 수가 있었다, 평소나마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누굴위해 살고 누굴위해 일을 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 되었다.

**밥과 사랑을 퍼주는 일이다** 서일중학교 조성민  
 비록 하루 동안만 이곳에 와서 봉사를 했지만 내가 받은 성취감과 만족감은 결코 하루치가 아닌듯 하다. 봉사라는 행위가 단지 학교 내신을 위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려나오는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솔이다** 휘봉고 신재혁  
 다음에 오는 친구들에게 솔씻기를 권장해야겠다. 솔을 씻으며 자신의 마음의 때와 묵은 고민등 잡념을 함께 씻어 내릴수 있어서 정말 보람찼다. 단언하건데, 밥퍼 봉사중에 가장 알차고 가장 보람찬 활동이다.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와서 봉사하고 싶다.



**휘봉고**



밝은사회 휘봉고 클럽 '감탄사'에서 방학을 맞아 이틀동안 봉사에 참여 했습니다. 개교 2주년이 되어 처음 봉사단을 만들었다는 휘봉고는 감동과 탄성을 전하는 봉사단이 되라는 의미로 교감선생님께서 직접 '감탄사'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다는군요.

**예스코**



밥퍼 건물이 새롭게 단장되고 기쁜마음으로 찾아오셨던 예스코는 2년여의 긴시간과 노력을 들여 밥퍼에 도시가스가 공급될수 있도록 배관공사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밥퍼는 매일같이 예스코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우정청FC**



봉사가 몸에 배어있으신 FC봉사단은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의 살림의 지혜를 한껏 실천해주고 가셨습니다. 한분한분의 시원시원한 함박웃음이 어르신들께도 건강한 에너지로 전해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교회**



정기적으로 오시는 새로운교회에서 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함께 했습니다. 여름의 한가운데서 책상에서 벗어나 땀흘려 봉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시간이어서 감사하다 소감을 전해주며 사랑의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외환은행나눔재단**



밥퍼의 친밀한 동역자 외환은행나눔재단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척척 알아서 해주시는 덕분에 항상 여유있게 밥퍼가 진행됩니다. 넷째주 토요일이면 한주와 한달의 마무리를 깔끔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외환나눔재단이 최고입니다.

**한일이화**



한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봉사오시는 한일이화 유양석회장님과 임직원분들이 지난번 행복한 도시락 모금에 이어 이번달엔 명절을 앞두고 쌀 1,000kg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더 좋은것으로 더 많은것으로 채워주고 싶어하시는 그 마음이 전달되어 참 감사합니다.

**삼양제일교회**



최일도 목사님의 강연을 듣고 깊은 감동으로 참여한 봉사라고 하시네요. 생생한 현장의 체험이 눈물나도록 감격스럽고 감사하다며 봉사후 밥퍼를 위해 오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중보기도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글로벌리서치**



밥퍼에 봉사 오시는 기업들을 만날때마다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대표님의 선한 인성과 임직원분들의 편안하고 자유스러움입니다. 역시 글로벌리서치도 그렇습니다. 행복한 회사의 분위기가 봉사때에도 그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한국중부발전**



추석이 다가오면 잊지않고 밥퍼에서의 봉사를 실천하시는 한국중부발전입니다. 경영관리처 염홍열처장님께서 함께 참여하시고 활기찬 분위기로 밥퍼의 기쁨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나는 배웠다

샤를르 드 푸코

나는 배웠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뿐임을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에 달린 일

나는 배웠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쏟아 다른 사람을 돌봐도  
 그들은 때론 보답도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를 쌓는 데는 여러 해가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임을

삶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곁에 있는가에 달려 있음을 나는 배웠다  
 우리의 매력이라는 것은 15분을 넘지 못하고  
 그 다음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다른 사람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해야 함을 나는 배웠다  
 삶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달린 것임을

또 나는 배웠다  
 어떤 것을 아무리 얇게 베어 낸다 해도  
 거기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샤를르 드 푸코  
 (Charles de Foucauld, 1858~1916)  
 신부이며 사하라 사막의 선교사로서 예  
 수님의 충실한 종으로 일생을 헌신했다.  
 그는 그가 섬기던 티라만셋 사람들에  
 의해 순교했고 복자품위를 받았다.  
 훗날 그의 삶을 본받기 위해 예수적은  
 형제라는 수도회가 세워져 전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다. 대표  
 적인 기도 시 '스스로 내어 맡기는  
 기도'는 다일공동체의 중요한 기도문 중  
 하나이다.

영혼을 위로해 주는 시 [이루어지게 하소서](도서출판 마음의 숲) 중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 Vietnam · China

## 베트남



### 대,청,밥 활동.

베트남 내의 한인청소년들에게 봉사의 장을 열어주기  
 위한 청소년 봉사 단체인 대,청,밥(대한민국 청소년 밥  
 퍼) 회원들 간의 단합과 건전한 문화 활동으로 체육대  
 회를 가졌습니다.

넘치는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  
 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며 마음과 몸을 단  
 련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청,밥 회원들이 다니는 학교마다 여름방학을 시작하  
 여 매주 토요일 빈흥화지역 밥퍼 센터와 동나이 고아원  
 을 방문하며 봉사의 땀을 흘렸습니다. 방학을 맞이하여  
 한국을 방문하는 회원도 많았지만 매주 봉사에 참여하  
 는 회원들 또한 많았습니다.

집안에서 어린자녀로 부모님으로부터 도움만 받던 청소  
 년들이 솔선수범하여 가난하고 험벗은 우리의 베트남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대,청,밥 회원들의 모습이 참  
 으로 대견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 중 국



### 원삼이의 티벳 여행

원삼이가 직업고중 제빵 조교과정을 마무리하며 보름동  
 안 티벳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같은 중국땅인데 많  
 은 다양한 모습에 큰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해보는 긴 여행을 통해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며  
 성장해가고 있는 원삼이의 모습이 오늘따라 능능해 보  
 입니다.

### 중추제(추석)와 월병

중국도 추석을 맞아 3일간의 연휴를 온 가족이 함께 지  
 내며 맛있는 월병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한국의 송편속이 다양한 것처럼 월병의 속에도 팥, 녹  
 두, 깨, 말린과일, 잼곡 등 다양한 맛들을 골라먹는 재미  
 가 있습니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  
 람들이 있기에 늘 명절은 기쁨이 있습니다.



## Cambodia · Nepal · Tanzania

### 캄보디아



캄보디아 다일 센터에서 드리는 주일공동예배는 세 번 있는데요. 한국인을 위한 성만찬 예배와 크마에 청소년 예배 그리고 크마에 아동부 예배입니다.

그중 청소년 예배가 참 뜨겁습니다. 예배시간 마다 찬양과 말씀을 사모하며 드리는 청소년들을 바라보며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품고 기도하다가 제 1회 청소년 수련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0명을 예상하며 준비하였는데 210명이 찾아왔고 2박 3일 동안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몸으로 느끼며 뚝뚝 스텝들이나 가르치던 선생님들 까지도 우리 모두가 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 네 팔



### 조경민 형제님, 감사해요!

여름방학 때마다 네팔다일공동체를 찾아주는 영국유학생 조경민 형제님이 올해도 센터를 찾아와 직접 봉사하며 아낌없는 사랑을 나눠주었습니다.

십대 아이들과 벌써 형님, 아우하며 친해져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나서도 전화와 페이스북으로 안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을 위하여 신발을 사서 직접 신겨주기도 하였고, 네팔다일공동체 스텝들과 자원봉사자 학생들을 위하여 M,T 비용도 별도로 후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낙후된 놀이터의

미끄럼틀, 그네, 시이소를 새로 후원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영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조경민 형제님, 감사해요! 열심히 공부하다 내년 여름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

### 개봉박두! 포카라다일공동체

그동안 한국 다일공동체 본원에서 훈련받은 따루 목사님, 산티 사모님과 딸 에스더가 훈련을 잘 마치고 네팔로 왔습니다. 잠시동안 카트만두의 다일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공동체생활을 하다 네팔 제2의 도시인 포카라에 포카라다일공동체와 포카라다일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드디어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이어 포카라에 세워지는 포카라다일공동체와 포카라다일교회를 위해 뜨거운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탄자니아



### 태권도로 사랑을 신고 ~

태권도로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두 사범님이 있습니다.

탄자니아 연합대학교(UAUT)에 단기 선교 오신 김현수, 황선웅 사범님이 그 주인공입니다. 태권도 한류로 인해 탄자니아 사람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태권도를 참 좋아하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밥퍼를 사랑해 주시는 UAUT 최규연 선교사님과 함께 쿤두치 밥퍼센터에 자원봉사 오셔서 멋진 발차기와 함께 아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 주신 두 분 사범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단기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셨지만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쿤두치 밥퍼 센터 아이들을 계속해서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쌀 밥 먹겠네요.

쿤두치 밥퍼 센터에서 결연 아동들에게 결연 지원품을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 탄자니아 다레살람의 쌀값이 내렸습니다. 옥수수 가루의 가격과 동일한 쌀이 있어 식용 기름과 함께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니 돈이 있으면 옥수수 가루 보다는 쌀 구입을 더 선호한다고 하네요. 아이들도 쌀밥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저녁에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쌀 밥 먹겠네요.

이 밥 먹고 밥이 되어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며 탄자니아의 푸르른 미래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Yehyang

예향어린이집



약물오남용 안전교육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던 약의 종류에 대해 다시 한번 회상하여 이야기나누고 먹을 수 있는 약과 먹을 수 없는 약을 분류해보았어요. 그 후에는 복용하는 약을 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먹을 수 있는 약은 우리 친구들의 증상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모두 다르게 의사선생님께서 처방해주시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의 허락없이 약을 먹거나 조금 아프다고 해서 친구의 약을 그냥 먹으면 안된다고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즐거운 물놀이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예향어린이집 친구들과 성내천 물놀이장으로 현장학습을 다녀왔어요. 체육선생님과 함께 시원한 성내천에서 신나는 물놀이가 이루어졌어요. 물놀이 후에는 엄마가 싸주신 맛있는 도시락도 먹고 다시 힘을 내서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조롱박이 열렸어요

예향어린이집 텃밭에 심었던 조롱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선생님과 행복반 친구들이 모여서 옛날 사람들이 사용했던 바가지의 용도와 바가지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 보았습니다.

박의 질감, 색, 냄새 등을 알아보고 손가락으로 직접 속을 파내 박을 만드는 것을 돕는 행복반 친구들~ 어서 튼튼한 바가지가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께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2013년 8월 21일~9월 22일

**신규후원자** (주)현대엔지니어링, 강유영, 강윤정, 강은국, 강은정, 권선용, 김경희, 김계순, 김금난, 김금숙, 김다식, 김미정, 김상규, 김상규 목사, 김소미, 김순영, 김연교, 김용관, 김용덕, 김용진, 김유연, 김유주, 김인숙, 김임순, 김정우, 김진수, 김태준, 김평기/이혜숙, 김혜원, 남태현, 노해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흥교회, 두여희, 류양희, 목진경, 문양순, 문정자, 문종명, 박경아, 박미경, 박미란, 박시은, 박인호, 박현주, 박혜란, 박혜리, 밥퍼사랑행복나눔, 배영실, 백유미, 백호자, 사공계순, 사역한모두, 서울메디칼약국, 서울시의회, 서해란, 손수희, 신경애, 신미정, 신지영, 신천교회, 신한나, 심오명, 안민정, 안순남, 안영철, 양자선교회(교회건축), 연승학, 열길현, 오계순, 오양실, 우지훈, 원지혜, 위신영, 유규열, 유축재, 윤명옥, 이강훈, 이두희, 이명재, 이명희, 이성복, 이연실, 이연정, 이연희, 이영자, 이예나, 이윤숙, 이을련, 이인숙, 이일웅, 이진만, 이창명, 이항례, 이항희, 임창호, 작은후원, 장훈, 정구필, 정원범, 정유석, 정은순, 정정연/소지연, 정희숙분당우리, 조소행, 조은진, 조현선, 조현호, 진건, 채화연, 천경옥, 최선미, 최월례, 최의열, 최인선, 충신교회제5남선교회, 한유진, 한은정, 허기숙, 현민지(현정재), 홍혜림, 황준철, 이광원 (가나다 순)

8월11일~9월10일

**밥퍼 - 후원금** 현대상선, 외환은행나눔재단, 소망봉사팀, 휘봉고감탄사, 박명숙, 이일옥, 대한지적공사 동대문지사, 김향숙(동양마트), 광현교회, 윤현숙, 정신남, 권혜진, 지연희, 신민숙, 강찬훈, (주)에스지엔지, 다일교회밥퍼봉사팀, 김기순, 홍경화, 김성철, 최주영, 김은정, 이희숙, 박종일, 국순애, 이종욱, 황재영, 장문성, 김재하, 황귀중, 이동원, 서장선, 사단법인뷰티플마인드, 서울정FC연합회, 번성하는104, 김명숙, 구미목장교회, 밥퍼사랑행복나눔, 글로벌리서치, 김종운 이명신, 대한지적공사동대문지사, 소망교회고등부, (주)에이엠지코, 최주영, 조현숙, 두여희, 최경근, 박유미, 국방홍보원, 박명숙, 이일옥, 한국중부발전(주), 서울시의회-월간파워코리아

8월13일~9월10일

**밥퍼 - 후원물품**

8/13	최부영 쌀 30kg 1포	8/14	서울우유 우유 1008개	9/4	드림재단 빵 800개
8/13	사조 카레1kg 90봉, 고추가루1kg 290봉, 김 260봉	8/30	윤호미트 육계 146마리	9/5	한일이화 쌀20kg 50포
8/14	이미정 마늘5kg 1box	8/30	드림재단 빵 800개	9/10	가나다푸드 김치20kg 1box
8/14	드림재단 빵 800개	9/3	(주)친환경두채류사업단 콩나물4kg 20box	9/10	서울메트로 신담승무사업소 쌀 20kg 25포
8/14	노경애 고추 1box	9/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쌀20kg 15포, 채소 3box	9/10	사람인 냉장고1677L 1

8월11일~9월10일

**밥퍼 - 후원약정** 고평나, 이두희, 고요한, 강윤정, 이일웅, 노미현, 장기석, 남명숙, 박선희, 박현숙, 이현식

**베트남-백불의 기적** 기업은행(3,155,500동), 사이공한인연합교회(300만동), 대광(420만동), 대장금(500만동), 포스코베트남(600만동), 아리랑화학(210만동), 베가스(400만동), 나할(250만동)

**베트남-후원자** 최기흠, 최혜인, 최혜린, 배준익, 배서진, 배진영, 김태연

**베트남-후원물품** 포스코CT( 쌀20kg, 바나나), 기업은행(우유 150개)

**중국** 김성재(Obey & Praise), 강영남(중국 심천), 이숙의(미국 시카고), 권윤경(중국 훈춘), 림예화+한원철(중국 훈춘), 무명(겨울파카30여중), 금곡교회 초등부, 안산빛나교회, 김광호+한용수(우유), 훈춘 제5중 1-3

**탄자니아** 이해명, 탄자니아 한인교회, 이창엽

-현장에서 후원금을 전달해 주신 분들입니다.

"지속적인 사랑으로 후원해주시는 후원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일은 여러분의 꿈과 정성이 담긴 귀한 후원금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사역에 앞장서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일복지재단 후원안내

# ARS 060-708-1588

### 다일복지재단 후원 방법 안내

#### 1. CMS(자동이체)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다일복지재단(02-2212-8004)으로 전화주시면 CMS신청이 가능합니다.

#### 2. www.dail.org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후원에 대하여 알 수 있고 손쉽게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후원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3. 착한소비 행복한 나눔

##### 사랑의 보험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을 기부플랫폼에 견적예약 하면 보험만기 1개월 전에 8개 보험사 비교 견적을 제공하여 가장 좋은 가입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동시에 수익금의 일부가 다일공동체에 기부됩니다.

모든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체 참여

**후원 문의** TEL 02-2212-8004  
FAX 02-2212-8032  
www.dail.or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1동 497-77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미주지역 후원계좌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은행번호 : 061119794  
계좌번호 : 1510014622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계좌번호 : 334001270347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한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BOFAUS3N  
(미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026009593

국내후원계좌 국민 467701-01-053115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미주다일공동체 후원 문의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33

DAIL Community of USA  
P.O BOX 337 Suwanee, GA 30024-0337

### 국내 및 해외 분원 연락처와 후원계좌

**밥퍼나눔운동본부** 문의 전화 02-2214-0365  
E-mail babfor@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37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설곡산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31-585-2004  
E-mail abeho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64419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천사병원**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Sunyou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01-0975-87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작은천국**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bjgjesus@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평화의 마을** 문의 전화 031-568-5004  
E-mail ahtp7749@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01-0619-487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중국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6-183-4339-7009  
E-mail mookanri@dail.org 070-7792-5451  
**후원계좌** 기업 017-033086-01-02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베트남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4-12-6317-7912  
070-8220-6160  
E-mail lplhome@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9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캄보디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55-78-70-8080  
070-8220-3940  
E-mail gracekeo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65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필리핀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63-927-560-7346  
070-8220-3278  
E-mail emhok@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네팔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977-98494-58330  
070-8201-5833  
E-mail babperdail@hanmail.net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5744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탄자니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255-786-740-003  
070-4099-8686  
E-mail dail8004@gmail.com / hslee0304@hotmail.com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3396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다일영성수련

2013년 | 11월 11일(월) ~ 11월 15일(금) | 1단계 150기 아름다운세상찾기  
 11~12월 | 12월 16일(월) ~ 12월 20일(금) | 1단계 151기 아름다운세상찾기



“내 인생에서 못해본 여행이 딱 두가지 있다. 신혼여행과 우주여행. 신혼여행이 얼마나 멋질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다일공동체에서 경험한 영적우주여행,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라는 영성수련은 여태까지 내가 한 여행중에서 가장 멋지고 황홀한 여행이었다.”

-한미야(전 월드컵전 구로팀장)

## 설곡산 다일공동체

## 시설이용안내



설곡산다일공동체는 침묵의 성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되는 공동체 정신과  
 나사렛 예수의 영성을 침묵과 노동 속에서  
 구현합니다.  
**화해와 일치**를 위해 **섬김과 나눔**을 살아가기  
 원하는 분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 **쉼**을 원하시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대표 | 최일도 목사**  
 다일교회 설립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사회교육 강사  
 한동대학교 겸임 교수



설곡산다일공동체 T: 031)585-2004  
 www.dail.org H: 010)7756-8004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 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 마감하며,  
 수련비 입금(농협 355-0022-4654-93 예금주:다일공동체)으로 등록 완료됩니다.  
 영성수련은 한 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I NEPAL

"밝은 미소로, 미래로, 세계로..."

이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네팔 다일공동체의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지구촌 곳곳마다 써번트 리더십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보석보다도 귀하고 값진 우리 다일 스템들의 헌신과 아낌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네팔 다일공동체는 밝은 미소로, 미래로, 세계로 힘차게 나아갑니다!

